

# OCI,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소재 공장 착공

### 2025년부터 연산 1000톤 규모 생산목표로 건설 추진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도약에 탄력

OCI(주)가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북에 생산 발판을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OCI(주)가 군산공장에서 실리콘 음극재용 특수소재 생산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

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정희 도의원,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김유신 OCI(주)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OCI는 1969년에 설립된 국내 화학 및 에너지 기업으로 전통적인 무기화학 제품부터 카본 소재 및 유기화학 제품, 반도체 소재 및 이차전지 소재까지 다양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실리콘 음극재용 특수소재 공장은 현재 반도체용 폴리실리콘과 인산 등을 생산 중인 OCI 군산공장의 유휴용지를 활용해 연산 1,000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음극재 소재의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OCI는 지난해 7월 영국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 넥세온에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원자재(SiH4)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넥세온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에 5년 동안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시장 성장 및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증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 2세대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최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OCI는 이번 실리콘 음극재 원재료 공급을 시작으로 추후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및 반도체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신 OCI(주) 대표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OCI는 지속해서 첨단소재 사업을 확장해 나가 글로벌 핵심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의 협력을 강화해 군산이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소재 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는 OCI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OCI가 전통적인 케미컬 회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차전지 소재기업으로 거듭나게 될을 기쁘게 생각하며 군산경제의 든든한 한 축인 OCI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OCI(주)가 군산공장에서 실리콘 음극재용 특수소재 생산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 보건환경분야 연구사업 성과 '한눈에'

### 도 보건환경연구원, 2023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

전북자치도가 보건환경분야 연구조사사업의 성과를 모아 책으로 펴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조사사업 8편을 모아 보건환경연구원보 제32권을 발간하고 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보는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원의 노력이 담겨 있다. 연구원보에는 △지역사회 유행 감염병 추적을 위한 하수처리장 유입수 연구 △구절초 추출물의 혼합발효를 통한 생리활성 강화연구 △오존발생 빈도가 높은 군산 지역의 오존생성기여도 평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 등 연구조사논문 및 초록이 수록돼 있다.

수록된 논문 중 지역사회 유행 감염병 추적을 위한 하수처리장 유입수 연구는 하수의 주요 감염병 증감 추이를 파악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예측했고 사전에 확산차단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지역 구절초 생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구절초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한 '구절초 추출물의 혼합발효를 통한 생리활성 강화연구'는 2024년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가 주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원주 재래생강을 보존하고,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수행한 '원주 생강의 이화학적 특성 및 향산화 활성 연구'를 통해 원주 재래생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퇴·액비화 공정 중에서 배출하는 악취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때 악취 저감 관리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우수 연구 과제로 선정돼 국립환경과학원장상을 수상했다.

오존 고농도 발생지역에서 대기 흐름과 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오존생성에 기여도가 높음에 따라 증정 배출업종의 배출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안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킬 뿐만 아니라 청정 환경을 조성해 가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내 안전 취약지역 개선 위해 '구슬땀'

### 남원시,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 사업'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와 도청 자체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지난 24일 남원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전에 효과적인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원시는 지역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사고 분야로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도통동과 금동을 '시설개선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6월부터 12월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안전지수 개선과 지역의 안전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2024년

지역 안전지수 향상 컨설팅'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도 전북자치도와 김제시가 최종 선정됐다.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전북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역 안전 위험요인 분석 결과와 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의 제안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자치도는 자체사업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범죄 우려가 큰 지역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과 지역 안전지수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노형수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전북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사회적경제기업, 금융 부담 덜다

### 시설·운영자금 17억 규모 융자 지원... 전년비 3배 이상 28일까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이메일 등에 신청

전북자치도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17억여 원의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도내 사회적 기업들의 자금난을 극복하고자 지원 규모를 지난해(약 5억원) 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 기업당 경영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

지, 시설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 금리 3% 이내 조건으로 최대 5년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금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도 기금 중개기관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7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8월 대면심사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신청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등을 평가해 8월 중 융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는 오는 21일 전주시에 소재한 소셜 캠퍼스에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금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홈페이지(<http://www.jbcoop.or.kr>)에 공지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전화(063-212-22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금은 담보·보증·재무성과 입증 부담 등으로 제도권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1년 설치됐

다. 기금 설치 이후 기업의 경제성과 사회기여도를 함께 평가해 지원하는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도내 30개 기업에 총 16억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일반 금융권 융자와 달리 저금리 융자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 금융교육 등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자립기반 구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신미애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 경제과장은 "사회적 경제기금 융자지원사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금융자 규모가 증가할 만큼 기금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금융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